Healing Family

Weekly News Letter

힐링 패밀리

발행 번호 제2013-8호
2013. 7. 16 – 7. 31

발행처:(사)국학원
발행인: 장 영 주
☎041-620-6700
www.kookhakwon.org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167-1

신나는 래프팅- 경남 힐링패밀리 캠프

CONTENTS

1.2 우리얼찾기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
3 울산국학원, 개원 8주년 이모저모
4 제주국학원, MBC 방송출연 이야기
대전국학원 농촌지도자 리더교육
5 중앙국학원 장영주 원장(代) 스페셜 특강
6 경기국학원, 도서관 인문학강좌
7 경기북부국학원, 국경일이야기
8 충북국학원, 환경힐링캠프이야기
9 제천중학교 교직원 전통종목강습회 실시
전남국학원, 금빛사랑 국학강사 모임
10 중앙국학원, 한승용 사무처장의
지역국학원 순회 이야기
11 대구국학원 '부모됨의 철학' 이야기
서울국학원 '아버지 힐링교실' 이야기
12 부산국학원, 재미있는 국경일이야기
경북국학원, 경북혼을 일깨우는 역사교실
13 경남국학원, 힐링패밀리 래프팅
14 광주국학원, 경로당 약손봉사 이야기
강원국학원, 자석 활용 자기명상수련
15 전북국학원, 경로당 순회사업
16 중앙국학원, 연변 후사모와 MOU 체결
17 중앙국학원, 무교인 국학원 투어
18 중앙국학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 시리즈
19 중앙국학원, 힐링명상지도사 2급 교육 실시
20 청학초등학교 국학원투어, 김용식 교장
충북 보은교육청 국학원 투어
21.22 전국 국학원 단신
23 국학시민대학개강 안내

“ 국사 수능 필수, 개천절에 대통령 공식 참석, 단기연호 함께 쓰기 ”

2013 우리얼찾기운동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 전개

우리얼찾기국민운동본부(이하 얼찾기본부)는 7월 31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에서 ‘2013 우리얼찾기 운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올바른 우리 역사, 우리말 교육의 강화와 국사 수능필수과목 지정 ▲개천절 정부 공식행사에 대통령 참석 ▲단기연호 병기를 내용으로 대정부 건의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청와대와 정부관계부처에 전달했다.

모두가 행복한 얼씨구 대한민국,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얼찾기본부는 작년에 창립하여 지난해 좋은학교 만들기와 홍익교육 실시, 예절이 살아있는 한민족 고유의 공동체 문화 복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민 182만 명의 서명지지를 받은 바 있다.

역사는 국민의 얼이다. 얼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국학원과 60개 시민단체 8월 1일부터 100만 서명운동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역사침탈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능 위주의 교육체계에서 국사과목이 외면 받고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리서치결과를 통해 드러나면서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얼찾기본부는 “역사는 국민의 얼이다. 올바른 역사 찾기를 통해 얼이 있는 국민, 얼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는 취지로 8월 1일부터 사단법인 국학원을 비롯해 6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국학원 장영주 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역사는 민족의 얼을 상징한다. 이제는 민족이 얼을 되찾아야 할 시기이다. 주변국들이 오염시켜 놓은 정체성을 정화하고 이 땅에 자라나는 세대에게 제대로 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식민사관에 찌들은 성인들의 전철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자주적인 사관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얼찾기범국민 100만 서명운동 성명서를 청와대와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있는 이성민 국학운동시민연합 대표(좌)와 성배경 국학원 이사장 (우)

장 원장(왼쪽 위 사진)은 “우리는 나라가 위난에 빠져있을 때 국민 스스로 일어나 위기를 극복한 민족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러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민족의 화합과 번영을 이루어 내는 그 날까지 민족정신 광복을 위한 우리얼찾기 국민운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모든 국민의 가슴에 각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날 이성민(왼쪽 아래 사진) 국학운동시민연합 대표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화합의 구심점은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땅의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야한다.” 며 현재 수능에서 국사선택 비율이 7.1% 에 머무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사를 수능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성배경(오른쪽 위 사진) 전국민족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취지문에서 “대한민국의 뿌리를 알려주는 개천절은 정부에서 관심을 가

져야 할 건국기념일 행사이다. 광복이후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서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것은 그 중요성을 의미한다.” 라며 대통령이 참석하던 행사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는 행사로, 다시 국무총리 주관행사로 격하된 것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성배경 대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 반만년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대통령의 개천절행사 공식참석을 촉구했다.

박용진 천군리더스클럽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스스로 반만년 역사를 부정할 필요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단기연호 부활을 통해 우리의 반만년 역사와 홍익의 위대한 문화를 복원할 때” 임을 강조하고 “서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단기연호를 필요에 따라 병기하도록 허용하라.” 고 촉구했다.

우리얼찾기본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한다.

1. 전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한 국민적 관심을 모아 정부의 행동을 촉구한다.
2. 국경일인 개천절 정부 공식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3. 정부의 해당부처를 방문하여 사안의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한다.
4.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 연계활동을 전개한다.
5. 각종 역사교육, 강연회, 세미나, 학술대회를 통해 올바른 역사 교육에 앞장선다.

서명운동은 얼찾기본부를 비롯해 (사)민족문화통일회, (사)한민족학세계화본부,(사)세계학생UN본부, 국학운동시민연합 등 49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사)국학원, 천군리더스클럽, 국학운동시민연합이 주관한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우리얼찾기국민운동본부 명예위원장을 맡았고, 상임본부장에는 민족종교 선불교 만월 도전이 선임됐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박성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택휘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김호일 전 안중근기념관 관장, 장준봉 전 경향신문사 사장,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문상주 전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사회지도급 이사들이 상임고문직을 맡아 활동한다.

[우리의 결의와 요구 사항]

1. 올바른 우리 역사, 우리말 교육을 강화하자 !

어제가 없는 오늘,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고 잘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홍익정신이 있지만 역사를 모르니 우리 사회는 이기심에 빠져 헤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라 !

2.. 개천절 정부 공식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하자 !

4대 국경일 중 하나이자 한민족의 생일인 개천절 정부 공식행사가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경축사를 대독하는 행사로, 이제는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행사로 격하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국민의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2013년 개천절 정부 공식 행사부터는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하라.

3. 서기(2013년)에 단기(4346년)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자 !

1960년대 초까지 국가공식연호였던 단기가 경제발전을 시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구화와 세계적 공통이라는 행정편의를 위해 1962년부터 서기로 대체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를 서력기원(2013)으로 하되, 필요시 2013(4346)년처럼 단군기원을 병기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개원 8주년 맞은 울산국학원, 굿뉴스 이모저모

한결같은 국학에 대한 열정으로 울산국학원을 홍익경영하는 문종수 사무처장.

울산국학원은 2005년 8월 1일에 개원식을 하여 올해 8주년을 맞았다.

997년 1월 한문화 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2005년 8월에는 회원들의 땀과 정성으로 울산국학원이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국학활동으로 지역의 주요인사 및 회원들과 함께 성장 발전하고 있다.

울산국학원 문종수 사무처장은 "앞으로의 울산지역의 주요 NGO로서 역할을 다하고, 3만명의 회원을 만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는 곳, 간절곶에서 국학의 정신이 담긴 신년 메시지를 온 국민의 희망메시지로 확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휴먼서비스 개발연구소와 우호협력을 위한 MOU(업무협약)체결

울산국학원에서는 지난 16일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 개발연구소와 **MOU(업무협약)**를 맺었다. 문 사무처장은 양 기관의 공동 연구 및 상호교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강사와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교류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울산국학원은 향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과 평생교육원 설립에 따른 대외적인 전문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울산 시민을 위한 국학 강좌 개설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평화학과 김선미 교수 초청강의

지난 18일 울산국학원에서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평화학과 김선미 교수를 초청하여 울산 시민을 위한 재능기부 강좌를 개최하였다. 제 1주제 – 생활정치, 삶을 바꾼다, 제 2주제 - NGO 조직운영과 사회운동전략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강의에서 정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존재하고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NGO들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이다' 라고 하여 울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문종수 사무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학원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우리의 국학을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국학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와 MOU 체결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김선미 교수 초청강의 모습

제주국학원의 고덕순 강사

제주 고덕순 강사 MBC '고향을 부탁해' 에 방송출연

제주국학원, 작년부터 바우처 사업 실시, 국가보조금으로 진행

제주국학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어르신 대상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 1회 2시간 1년여 기간이상 애월읍 납읍 마을, 하귀 2리, 외도동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기체조를 지도해오다 본격적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것.

특히 제주도 애월읍 납읍 마을에 건강기체조 수련을 나가는 고덕순 강사는 최근 MBC '고향을 부탁해'에 방송출연을 하기도 했다. 방송에서 머리는 맑게 온몸은 따뜻하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옛선조들의 건강법인 전신두드리기, 단전치기, 장운동, 호흡, 웃음수련 등이 장수마을의 소문난 건강비결로 소개되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여러모로 행정적 절차가 까다로워서 강사들의 고충도 많지만 그 정성된 노고 이상으로 어르신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인근 마을에 소문이 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매주 사랑의 기운을 전하고 있는 제주국학원 강사님들에게 행복의 기운이 넘실댄다!!

"당신은 스페셜 리더입니다."

대전 국학원, 대전광역시연합회 채소연구회 농촌지도자 150명 대상 리더교육

대전농업진흥기술센터가 기획해 주관하는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 리더교육에 대전국학원이 나섰다. 농촌지도자들에게 리더로서의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130명의 농촌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대전국학원 이화수 강사의 파워풀한 지도로 '당신은 리더다' 라는 주제의 이번 교육은 시종일관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속에 진행되었다.

참석한 농촌지도자들 모두 새롭게 알게 된 아리랑 노래의 참뜻을 새기고 불러보며 한민족의 아리랑을 지켜온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자랑스럽게 느꼈다. 강건한 몸 단련을 위한 비법! 단공을 배우고 건강하고 멋진 리더의 걸음걸이 장생보법 댄스도 함께 했다. 농촌지도자님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대전국학원은 한민족의 웅혼한 기운이 대전 농촌지도자들의 순수하고 밝은 마음속에 깃들어 우리나라 농촌에 활력을 주기를 기대하며 추후 있을 교육에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公이 됨이 아니라 空이 되는 것

장영주 국학원장(代) , 대전국학원 국학강사 대상 국학특강

장영주 국학원장(代)은 지난 22일 대전국학원에서 국학강사 60명을 대상으로 '한민족은 누구인가 - 국학의 정신과 리더의 마음'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강연 중에 장 국학원장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유부무앙(有部無央)' 의 자세를 제시했다. 태풍의 눈을 비유하여 가운데가 비어있고 주변은 힘차게 회오리를 형성하면서 조화를 이루듯, 리더는 자신이 공(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空)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국시인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교육이념으로 정해지기 전에 이미 환국시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910년간 맥을 이어왔다고 전했다. 최초로 기원전 3898년에 신시배달국을 건국한 거발한 환웅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열여섯 자로 정리하였고(一神降衷性通光明 在世理化 **弘益人間,)** 이것을 2,000여 년 뒤, 고조선의 11대 도해단군이 65글자의 염표문(念標文)으로 완성하면서 국학의 정신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이 염표문에는 우리 후손들이 본질적인 자신의 정체, 천지인이 하나로 어우러진 큰 존재라는 것과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구현할 주인공이라는 가르침이 담겨있다고 하여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아울러 강의 도중에 장 국학원장은 본인이 이십여 년간 국학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보람, 일화를 소개하여 국학강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장 국학원장은 다음 달(8.19)에도 대전국학원의 초청으로 국학강사를 위한 업그레이드 교육을 할 예정이다. 특히 한 것은 국학강사들이 직접 본인 지역의 국학콘텐츠를 연구하여 발제하는 연구발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염표문念標文 단군조선 11세 도해 단군 (즉위년 BC 1891, 재위 57년)

天以玄默爲大 其道也普圓 其事也眞一 (천이현묵위대 기도야보원 기사야진일)

地以蓄藏爲大 其道也效圓 其事也勤一 (지이축장위대 기도야효원 기사야근일)

人以知能爲大 其道也擇圓 其事也協一 (인이지능위대 기도야택원 기사야협일)

故一神降衷 性通光明 在世理化 弘益人間 (고 일신강충 성통광명 재세이화 홍익인간)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문화의 상징을 만들어 볼까요

경기국학원, 수원지혜샘도서관 토요가족인문학강의 '국학편'

토요 휴무제로 인해 주말에 부모와 아이들이 소중한 추억을 쌓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수원 지혜샘어린이도서관에서 열린 '토요 가족 스토리텔링 인문학강좌'에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한글로 티셔츠를 디자인하고 나만의 무궁화를 그려 이름을 지으며 놀이와 강의를 통해 우리 민족 문화의 상징을 자랑스럽게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국학원 정정순 강사는 먼저 우리 고유 선도무예에서 나온 하늘을 떠받치는 천(天), 땅의 에너지와 교류하는 지(地), 사람을 사랑하는 인(人) 자세를 알려주고 술래가 외치는 무예동작을 하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했다. 잘 아는 놀이임에도 새롭게 무예동작과 함께 하면서 어색한 사람을 찾아내면서 아이들과 부모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무궁화, 한글 소재로 무한한 창의력 발휘

이어 우리나라 상징 꽃인 무궁화의 유래와 배달계, 단심계, 아사달계 등 계통에 따른 다양한 종류, 의미를 배운 후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무궁화를 그리고 독특한 이름을 지어 어느 계통인지 자랑하는 시간도 가졌다. 무지개 색을 칠하는 아이, 무궁화 안에 태극기를 그려 넣은 아이 등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했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강의 후에는 한글을 응용하여 각자 티셔츠 디자인을 하고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과 엄마 아빠들은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멋진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정정순 강사, 우리의 홍익 문화 전파

정정순 강사는 "우리의 모든 문화 안에 홍익인간, 천지인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고,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더 즐겁게 참여하고 재미있어 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라고 했다. 경기국학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가족대상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수원 지혜샘어린이도서관에서 매월 개최하는 '토요 가족 스토리텔링 인문학강좌' 10강 중 6월 8일에 '국경일 이야기'에 이어 7월 한글 아리랑 무궁화편을 맡았다. 참가한 가족과 도서관 측 관계자도 우리나라의 뿌리를 어렵지 않게 놀이와 창작을 하며 알려주는 시간이 매우 좋았고 행복한 공부였다고 전했다.

고양시 600년 기념 얼찾기, 찾아가는 국경일 이야기

경기북부국학원, 고양시 관내 20여개 학교, 4,000여 명 학생 교육

올해는 고양시(경기도)가 1413년(조선 태종 13년)에 고봉현과 덕양현에서 한 글자씩 따서 '고양현' 이 설치되어 고양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지 600년이 되는 해이다. 고양시에서는 고양 600년을 기념하는 기념관 건립, 학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북부국학원은 내고장 국학발굴 사업의 하나로 고양시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긴 국경일의 의미를 알려주는 교육사업을 기획하였고 고양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북부국학원 내 22명의 국학강사들이 5월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20여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약 4,000여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지난 7월 17일 한뫼초등학교와 강선초등학교에서는 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고양시 600년 기념 얼찾기, 찾아가는 국경일이야기' 수업이 진행되었다.

행주산성, 최영 장군 등 고양시 국학발굴

내가 살고 있는 고양시의 지명과 유래, 지난 역사 속에서의 사건과 역사인물을 배우는 시간, 동영상을 보고 강의를 들으며 고양시 대화동에서 발굴된 선사시대 가와지볍씨를 통해 4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던 곳이라는 것에 아이들은 놀라워했다. 행주산성에 얽힌 역사, 최영 장군 등 역사위인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에도 아이들은 재미있게 배웠다.

이어 한민족의 생일 개천절과 한반도 전역에서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이 일어난 삼일절, 일본강점기 수탈과 폭압 속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노력과 함께 맞이한 광복절, 해방 후 국가의 근간과 모든 법의 기초인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 산물인 한글제정을 기념하는 한글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국경일을 통해 유구한 우리의 역사와 위대한 철학, 뛰어난 문화를 배우고 우리의 뿌리를 바로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학생들과 참관 교사들은 동영상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고양시와 직접 관련 있는 역사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역사를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자연과 하나되는 명상 “힐링이 이런 것이구나!”

충북국학원, 청주동중학교 환경힐링캠프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 스쳐 지나는 바람소리, 숲의 푸른 향기 속에서 오감을 열고 자연과 나 자신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한 소중한 하루.

충북국학원은 지난 7월 18일 충북 괴산의 화양계곡에서 청주동중학교 1, 2, 3학년 학생 15명이 참가한 환경힐링캠프를 열었다. 지구시민운동연합 충북지부가 협찬한 이번 캠프는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지식이 아닌 체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힐링 명상

화양계곡에 들어선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함이 있었으나 힐링산책길을 걸으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행복한 웃음을 찾았다. 물이 흐르는 계곡의 바위 위에서 ‘오감느끼기’ 명상을 하면서 아이들은 깊이 자신의 내면에 집중했다.

명상 후 둘, 셋씩 모여 감상을 나누었다. “물소리, 바람소리, 벌레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자연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명상은 처음인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자연의 소리도 더욱 크게 잘 들렸다.” 며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소감을 나누었다.

리더와 팔로우쉽 게임, 다슬기잡기

산에 오르며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진행자의 짐을 거들기도 하고 학생들 서로 돕기도 하면서 어울리며 챙겼다. 산 위에서는 한 사람이 눈을 감고 다른 이가 이끌어주며 리더와 팔로우어로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놀이를 했다. 친구가 다치지 않게 이끌어주며 책임감을 배우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어 물놀이를 하고 다슬기를 잡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다.

이혜진 강사는 “학교 안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 성적과 경쟁에 익숙해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긴장을 늘 갖고 있다. 그런데 자연과 함께 교감하며 순수한 마음과 미소를 찾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니 감동이 밀려왔다.” 고 했다.

충북 국학원 김다혜 처장, 우리 고유의 철학을 힐링 명상을 통해 전달

이번 캠프에서 주강사를 맡은 충북국학원 김다혜 처장은 “우리에게는 ‘하늘, 땅, 사람이 하나’ 라는 천지인정신이 있다. 어떤 환경이론보다 뛰어난 우리 고유의 철학을 아이들에게 전했다. 깊은 명상을 통해 스스로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체험한 아이들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지킬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였다. 캠프 후 아이들은 방학 동안 환경관련 책읽기와 환경을 위한 행동하기를 약속했다.

충북국학원, 충청북도 전통종목 국학기공 강습회
제천중학교 교사 55명 참가

충북국학원은 7월 19일 오후 1시 제천중학교 강당에서 전통종목 국학기공 강습회를 열었다. 우리나라의 전통 선도무예를 기반으로 한 국학기공을 심도깊게 체험하는 강사양성과정으로 이날 제천중학교 교사 55명이 참가했다.

매년 국민생활체육 전국국학기공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학원이 주관하는 강습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에 제천중학교 교사가 추천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소식을 등재한 후 정식 교육으로 유치하였다.

강당에 모인 교사들은 기체조로 일상에서 지치고 굳어버린 몸을 유연하게 이완하고 깊은 호흡과 내면을 통찰하는 명상, 우리 선조의 기상이 서린 기공무예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돌보는 활공교육을 받았다. 강당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 하나를 익히며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내고 가족과 주변 이웃을 힐링하는 법을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능기부에 노년의 열정을 불태우는 기쁨
전남국학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국학강사 모임

금빛평화봉사단 회원들이 접시돌리기 국학기공체조를 하는 모습

"댕그랑 댕그랑" "어이쿠!" "허허". 지난 7월 26일 목포에 있는 전남국학원 교육장에는 70-80대 어르신들이 실제 접시를 손바닥에 놓고 국학기공체조 중 접시돌리기를 잘 익히고 있었다. 즐겁게 배우는 어르신들의 열정만큼은 젊은이 못지않다. 퇴직한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사회에 재능기부를 하기위해 모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어르신들이 매주 모여 국학강사로서 갖춰야 할 수련과 원리교육을 받고 있다.

2012년 2월, 전남교육연수원을 통해 전남국학원 조정희 사무처장의 강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봉사단에서 뇌활용 건강법 특강을 요청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몸과 마음, 뇌를 건강하게 하는 기체조를 배우고 "**나의 의식수준과 건강이 곧 사회와 인류를 건강하게 한다.**"는 내용의 강의에 감동받은 어르신들이 강의장 밖까지 배웅을 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조 처장의 전남국학원 초청에 박자형 사무총장을 비롯해 목포 쪽에서 활동하는 어르신 6분이 찾았다. 조 처장은 "우리가 건강에 대한 부분을 도와드릴 테니, 배운 것을 사회에 다시 돌려주십시오."라는 제안에 약속을 한 어르신들은 성실하게 국학강사교육을 마쳤다.

"처음에는 가볍게 국학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가면 갈수록 국학원이 가벼운 곳이 아니다.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며 개천행사, 역사왜곡규탄 서명운동, 역사사진전, 국경일이야기 강사교육 등에 적극 참여한 어르신들은 모두 국학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우리얼찾기 서명운동에 펼치고 있다. 복지관 등에서 문해교육 등 각자 봉사활동을 하는 이들은 그 현장에서 건강을 위한 국학기공 체조를 전한다.

국학원을 좀더 빨리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국학이 전남의 중심철학이 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국학관련 도서를 여섯 권째 읽는다는 한 어르신은 "읽다보면 내용이 정말 좋아 밤 새는 줄 모르겠다. 국학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지구인 운동이다. 대립하고 분쟁하는 현 인류를 통합으로 나아가게 하는 종교 위의 종교"라며 지인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살면서 보람된 일을 하고 가야하는데 나이 들어 정말 좋은 것을 찾았다."며 전남국학원 홍보이사를 스스로 맡아준 분도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이 아니라 사회의 지도층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르신들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전남, 광주, 부산 찍고 ~~~ 그 다음은??

중앙국학원 한승용 사무처장의 지역국학원 순회 이야기

한승용 사무처장(가운데)은 지난 16일 전남국학원을 찾아 신규 국학강사에게 국학강사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23일에는 빛고을 광주국학원을 찾았다. 매주 토요일 광주국학원에서는 무등산에서 시민들의 건강, 행복을 위한 생태힐링명상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30일에는 평화도시 부산국학원을 방문하였다. 임원진들과 함께 부산국학원의 꿈과 희망을 위한 도시락 담론도 함께 했다. (아래 사진)

"철학 있는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

대구 국학원 대구흥사단 '부모됨의 철학' 학부모 강좌

대구국학기공연합회 이용수 회장이 대구흥사단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시 흥사단의 대학생들과 중년의 학부모, 퇴임한 전직 교장선생님 등 4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대구국학원은 '부모됨의 철학' 이란 주제의 학부모 강좌를 열었다. 이번 강좌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폭력예방과 인성함양을 위한 학부모들역량강화를 위해 기획한 총 10강의 학부모역량강화 강좌에 채택된 것. 대국 국학원은 이번 강좌에서 현재 우리나라 가정이 처해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며 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아름다운 부부되기, 건강한 가정문화 만들기, 바람직한 자녀교육과 대화하기란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참석한 많은 분들이 홍익인간 양성을 위한 아름다운 부부되기를 위한 대안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충분한 부모되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결혼고시제' 에 큰 관심과 공감을 보였다. 참가자들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 폭력과 자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미래 글로벌리더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전하게 준비된 성숙한 부모의 역할이 백번 중요함을 모두 공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아빠부터 힐링하자~아빠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요!!

서울국학원 , 강동건강지원센터 천일초등학교 공동으로 '아버지 학교' 개최

지난 7월 20일(토)에 강동건강지원센타와 천일초등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버지 학교에 서울국학원 장민석 사무국장의 '아버지 힐링 교실' 이 진행되었다.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던 아버지들은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웃음과 사랑, 칭찬을 통해 행복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사회생활을 통해 잃어버린 균형감각을 찾고, 힐링하는 자기와의 만남을 가졌다. 뇌파진동명상을 통해 자신의 행복과 웃음을 명상으로 창조하며 마음이 환해지고, 편해짐을 확인하고, 부모가 제대로 건강할 때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힐링 교실을 마치면서 아버지들은 아내와 함께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가지며 아내와 함께하는 다음 번 교육의 기회를 다짐했다.

몸과 마음을 힐링 중인 '아버지 학교' 참석자들

독립군 되어 유관순 열사의 마음과 함께~

부산 국학원 , 동주여고 700명 학생 대상
'국경일 이야기' 재능기부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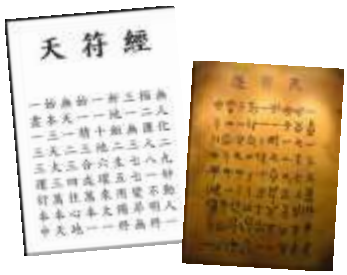
부산 국학원은 지난 7월 16일 동주여고 대강당에서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국경일 이야기' 재능기부 수업을 진행했다.

먼저 우리민족 전통 육아두뇌교육법인 '단동십훈' 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리도리 뇌파진동' 으로 몸과 마음을 열고, 애국가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하나하나의 의미를 짚어보며, 순국선열의 마음, 나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구성으로 꾸며졌다.

무더운 날씨라 학생들의 집중이 떨어질까 걱정했다는 인문교육부장 손성지 선생님은 교육에 몰입하는 아이들의 집중도에 놀랐고, 개인적으로 유관순열사 어록을 들으며 생생하게 그 시절에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너무 가슴 뭉클했다고!

박선우, 김채숙 국학강사님이 직접 교장선생님을 만나 제안하고, 김인식 강사님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이번 강의는 다음엔 교사특강, 학부모 특강으로 연결될 예정이라고 한다.

부산국학원 김인식 강사가 동주여자고등학교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국경일 이야기' 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천부경의 사상을 가진 우리나라, 너무 자랑스러워요!!

경북국학원 '사랑합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국학강의

지난 7월 17일, 18일 양일간 김천중학교 1학년 4개반과 안동복주여자중학교 3학년 7개반 전체 대상 '사랑합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국학강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경북국학원이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김천중학교의 경우 작년 2학년 대상으로 진행한 국학강의가 아이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되어 학교측에서 올해 다시 신청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아이들 대부분이 고조선 단군왕검이 47명의 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무궁화가 수 백개의 품종이 있다는 것을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어 놀라워했고, 우리나라가 천부경의 사상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며, 편히 밟고 있는 이 땅이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피나는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감동하고 가슴 뭉클해했다. 교육을 진행한 박혜숙, 성신종, 임형수, 박정희, 박선규 5명의 강사들에게 아이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세계적인 기적을 이룬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며 정말 감사하다는 진심어린 말을 전했고, 한 학생은 자신의 그동안 바르지 못했던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고 나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꿈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경북국학원 임형수 강사

경북국학원 박정희 강사

힘찬 물살을 헤치고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

경남국학원, 힐링패밀리 래프팅대회 개최

경남국학원은 지난 7월 27일 경남 국학강사들과 국학후원회원들 50여 가족 250여 명이 함께 한 힐링패밀리 래프팅대회를 열었다. 25척의 보트를 타고 경남 산청 경호강의 힘찬 물결을 헤치고 노를 저어 내려오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표정은 더없이 환했다. 여러 가족이 함께 어울려 도시락을 먹고 아이들은 다이빙과 물놀이에 뜨거운 여름 불볕더위를 날려버렸다

자연 속에서 어울리며 호연지기를 키운 이번 행사를 통해 경남 마산, 창원, 진주, 거제 등 각 곳에서 활동하는 국학가족들간의 화합의 시간을 갖고 자연스럽게 국학활동에 가족들이 참여하는 통로를 넓혔다.

경남국학원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국학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매월 가족 산행을 하고 올해 4월에는 경남 산청수련원에서 1박2일 워크숍도 개최했다. 지난 6월에는 거제를 시작으로 창원, 김해, 진주, 마산 등 각 시에서 힐링패밀리 장생보법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8월에는 핵심인재워크숍을 개최하여 하반기에 있을 개천행사 준비와 10월경 충남 천안의 국학원 본원에서 힐링가족캠프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즐겁게 노는 분위기 속에서 가족의 결속을 다지고 러브핸즈 봉사, 국학활동, 우리얼찾기 서명운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깊은 사랑

광주국학원, 어르신들을 위한 약손봉사활동

광주국학원은 지난 7월 15일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타운 1차 경로당에서 약손봉사 교실을 열었다. 어르신들이 살랑 살랑 몸을 흔들어 긴장을 풀어주고 따뜻한 손을 배위에 얹어 굳은 장을 풀어주는 손길에서 사랑이 묻어났다. 서로 몸을 돌보아주고 스킨십을 하는 동안 마을 어르신들 간에 우애가 돈독해지고 있다. 어르신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활공교육을 받아 친구에게 직접 해주며 건강을 돌보는 약손봉사활동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다.

약손봉사 교실은 전국 국학원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의 하나로 서로 서로 건강을 돌보는 강사로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광주국학원은 2010년부터 매월 4곳의 경로당을 정해 정기적으로 약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고려고등학교를 비롯해 학생들이 약손봉사 강사교육을 받고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손자 손녀가 되어 드리기도 했다. 학생들은 약손봉사활동을 하며 우리나라의 효 정신을 직접 실천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또한 작년에 광주국학원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여 60~70명이 교육을 받고 각 경로당을 찾았다.

김다혜 사무처장, 약손봉사로 사회 힐링하는 강사 양성할 터

광주국학원 김다혜 사무처장은 "어르신이 되면 어쩔 수없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외롭다. 약손봉사를 하면 아픈 몸도 좋아지지만 스킨십을 통해 서로 마음을 전하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고 했다. 김 처장은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할머니가 아이들의 배를 쓸어주며 '할머니 손이 약손이다' 하며 사랑으로 치유하는 전통이 있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한 작은 관심과 체험을 통해 누구나 쉽게 약손봉사를 할 수 있다." 며 "작은 배움으로 사회의 건강을 돌보고 도움이 되는 약손봉사 강사양성을 꾸준히 할 계획" 이라고.

약손봉사 강사들이 경로당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약손봉사 강사교육을 받고 효정신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

기운을 느끼고, 집중하게 되니 주변의 소음이 안 들려요!

강원국학원 자기명상수련

강원국학원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 2회 2시간씩 강원도 춘천 석사동 주민자치센타에서 자기명상수련을 운영하고 있다. 매회마다 체조와 자기명상수련, 호흡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는데 처음에는 주변 차 소리와 소음으로 명상을 힘들어 하던 회원들이 이제는 기운을 느끼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위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강사로 뛰고 있는 강원 국학원 박지영 사무처장은 자기명상수련이 집중력 강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신하게 된 주민들이 자기명상 자석을 직접 구입해 평상시에도 자발적으로 꾸준히 수련을 하고 있다며 자기명상수련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집중력 뿐만 아니라 감정조절력도 많이 향상 되어 몸과 맘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전한다.

석사동 주민들이 자석을 활용하여 자기명상수련을 하고 있다

경로당 순회 기공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신해림 강사(오른쪽에서 다섯번째)

경로당 순회 기공체조교실 - 따라하기 쉽고, 재미있어 효과 만점!!

전북 국학원/ 전주시 보조금사업으로 경로당 4곳 기공체조교실 운영

전북국학원은 국학기공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경로당 곳곳을 돌며 기공체조 교실을 열어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체조를 지도했다. 성원아파트, e편한 세상아파트, 호반 베르디움아파트 내 경로당과 만수경로당 등 4곳에서 주 2회 총 10회차로 진행중이며 향후 4곳을 더 진행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몸 상태를 함께 점검한 후 건강 원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체조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풀어낸다. 본격적으로 오십견, 혈압, 중풍, 관절염 예방 등에 효과만점인 체조들을 배우고 따라한다. 재미있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이라 강사님들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어르신들 모두 너무 좋은 운동이라며 기회만 된다면 계속 다시 하길 원한다고.

특히나 치매예방에 좋은 손유희 놀이는 모든 체조 중 인기 최고!

교통비 정도만 보조를 받고 움직이는 전북국학원 스타강사 삼총사님들은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체조교실을 마친 어르신들의 밝고 환해지는 모습과 몸이 좋아졌다고 자랑하는 말씀들에 더욱더 힘이 난다.

올해 나이 72세인 엄계자 강사님은 연세보다 10년은 젊어 보이고 유연한 몸을 자랑해 모든 어르신들의 모델!!

어르신들의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젊은 오빠 최석운 강사와 회를 거듭할수록 어르신들을 더욱 신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매력적인 여군출신의 신해림 강사님이 있어 전북의 모든 경로당은 밝고 환하게 변화할 것이다.

국학원, 후사모와 우호교류를 위한 MOU 체결

국학원은 후사모(후대 사랑과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모임)와 23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단군의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을 한민족(중국의 조선족 동포, 대한민국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기 위한 사업 협력과 이를 위한 상호 교환방문, 그리고 프로그램 공동개발, 나아가 민족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1997년 연변에서 이경호 회장을 중심으로 설립된 후사모는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장학사업 등을 통하여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사회봉사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중국 내 국학의 거점 확보에 유리, 우리 동포들에게 우수한 국학프로그램과 인력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국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학원은 향후 연변 조선족자치주 내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 동포들을 대상으로 국학원의 설립취지와 활동목적을 제대로 알림으로써, 앞으로 중국 내에 국학의 거점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국학원은 후사모의 회원이자 연변대학교 역사학과 강수옥 주임교수도 함께 초빙하여 미니강좌를 열었다.

강 교수는 국학원 방문 후에 한민족의 철학과 역사에 대해 깊이 감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우호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변대학교 역사학과 강수옥 교수

후사모 이경호 회장

무교인은 원래 임금의 스승이었다!

국학원 무교인 초청 방문의 날 !!

지난 18일 국학원의 초청으로 전국 각지에서 무교인들이 국학원을 방문하였다. 조성제(무천문화연구소)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먼저 장영주 국학원장(代)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전통문화속에서 건강관리법을 체험해보는 힐링기공 시간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국학원 한승용 사무처장의 브리핑이 계속되었다. 국학원이 세워진 목적과 걸어온 길, 그리고 설립자의 꿈과 비전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국학원은 일지아트홀 신현욱 원장을 초청하여 신명나는 율려 한마당을 열어 무교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무교인을 위한 전통문화아카데미과정' 개설에 대한 논의 펼쳐

마지막으로 '무교인을 위한 특별 전통문화아카데미'과정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무교와의 관계, 그리고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나눔과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결국 무교인 자신들의 업그레이드 방법에 대해 집중적이고 열렬한 토론을 펼쳤으며. 무교인 아카데미 과정을 만들게 되면 학문적, 전문적 분야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끝으로 이번 의미 있는 초청에 대해 국학원측에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으며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하나된 통일 대한민국

중앙국학원, 새터민을 위한 지원교육 전국에서 지속 전개

하나, 대한민국 주인되기 -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1박 2일 캠프 열려

지난 7월 18일~19일 1박 2일 동안 국학원에서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생활 정착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하나원 강의 등에서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은 국학측에 청주시에 워크샵의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이루어진 것. 북한을 떠나온 지 3개월에서 7-8년 된 분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모여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대한민국에 온 후 낯설고 힘든 그간의 고단한 어려움들을 공감하고 위로해주며 정착에 성공한 분들의 사례를 듣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 한편, 국학원 한승용 사무처장의 대한민국 주인되기 강의를 통해 한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며 남과 북이 하나임을 인식하는 정서적 공감대를 나누고, 우현수 교육국장의 내 삶의 주인되기 수련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짚어보기도 했다. 청주시청 기획경제국장 반재홍님의 내가 살고 있는 청주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자치행정과장 반현섭님의 인사말을 통해 청주시에 거주하게 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력으로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고자 함을 확인시켜주었다.

그 누구보다 통일대한민국을 열렬히 꿈꾸는 그들에게 마지막 마무리 시간에는 한민족이 하나되는 절대적인 중심가치 홍익정신에 대해 우대한 강사의 열강으로 모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직은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소통의 불편함이 있지만 워크샵이 끝날 때 쯤 서로 헤어짐을 아쉬어 하며 힘겹게 찾은 서로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행복과 감사하다며 다가올 내일을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가자고 약속했다. 남과 북이 모두 하나되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삶을 누릴 그 날을 기도하며...

둘,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2시간 추가 연장교육

사단법인 국학원에서는 작년 5월부터 통일부 산하 하나원(안산 소재)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희망취업을 위한 근로의식 고취' 라는 주제 아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기존보다 교육과정이 2시간 더 늘어났다.

꾸준히 하나원 교육을 담당해 오고 있는 국학원 박영준 강사는 지난 1년간 교육을 한 결과, 여타 다른 과정과 차별화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근로의식 고취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관계자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박 강사는 추가된 시간을 통해서 직장생활에 있어서 국학과 우리 민족의 얼과 홍익정신을 바탕으로 한 예의범절에 대해 더욱 더 소통 할 기회가 되었고, 교육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통일대한민국의 핵심 교육을 국학과 국학원이 전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대해나가고 지속해서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학원 박영준 강사

셋, 국학원 우현수 강사, 안전행정부 이북5도위원회로부터 표창

.국학원 우현수 강사는 지난 20일 안전행정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김동명)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1년간 '찾아가는 통일학교' 강사로 활동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의 이북도민 사회 편입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날은 이북 5도 청사(서울 종로구)에서 북한이탈주민, 이북도민, 가족 결연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마음축제 행가 열렸다. 우 강사는 "찾아가는 통일학교의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애국심을 고취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기반이라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은 상을 받게 되어 더욱 더 사명감으로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찾아가는 통일학교는 안행부에서 주관하며 다양한 연령과 정착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사회활동을 참여 유도하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북5도위원회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는 우현수 강사(오른쪽에서 두번째)

대구에 힐링명상지도사 2급 교육 첫 실시 !!

중앙국학원 김대원 강사(좌)는 지난 21일 대구국학원 국학강사를 대상으로 힐링명상지도사 2급 교육을 실시하였다.

실제로 명상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 과정으로 힐링명상의 필요성과 힐링명상의 원리, 힐링명상의 단계 및 명상체험, 힐링명상의 지도등의 순서로 교육이 이루어 졌다. 교육생들은 명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체험하고 원리를 이해하게 되어 자신감이 생기고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힐링이 대세인 요즘. 전국적으로 확대 될 예정이며 8월에는 20일, 부산국학원에서 실시된다.

“얼이 찾아져야 밝은 세상이 됩니다”

부산 청학초등학교 김용식 교장, 3년째 학생들 인솔하여 국학원 투어

김용식 부산청학초등학교 교장

지난 22일 부산 청학초등학교 학생 80여명이 국학원으로 현장학습체험을 왔다. 김용식 교장은 국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3년째 학생들과 함께 고향처럼 국학원을 찾아오고 있다. 이날 방문한 학생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큰마음을 체험하는 국학특강, 합심대도 전통문화체험, 상고사를 볼 수 있는 전시관 관람,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한민족역사문화공원을 둘러보면서 효충도 교육을 받았다.

평소 김교장은 학생들에게도 교직원들에게도 말이 아닌 몸소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보여주는 교육이 중요하다’ 는 본인의 교육철학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21세기 지구가 간절히 원해서 온 것이다. 행복한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자” 라고 늘 자신감과 자부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내 텃밭에 유기농 채소들을 직접 키우면서 교직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도 한다. 그리고 새벽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20년째 건강 체조를 지도하면서 안팎을 두루 돌보며 홍익을 전하고 있다. ‘얼이 찾아져야 밝은 세상이 된다’ 며 현재 우리 교육의 얼빠진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우리 국학 속에 그 해답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산 전 학교로 확대하여 국학을 전하고 실천하겠다는 김교장. 타 학생들과 달리 매우 적극 적이고 활기참이 넘친다. 이런 아이들을 바라 보고 있으면 김 교장의 교육 비전은 이미 그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듯 하다.

“역사는 사실이 아니고 상상력!” 충북보은교육청 교장단, 운영위원장 국학원 투어

한승용 사무처장이 보은교육청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국학특강을 하고 있다

지난 29일 충북 보은교육청 교장단과 운영위원 40명이 국학원을 방문하였다. 이미 국학원을 방문하고 국학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홍기성 교육장과 운영위원장이 보은에 있는 교육자들을 인솔하여 오게 된것. 국학원에 도착하여 한승용 사무처장의 '우리얼, 우리말 이야기'라는 주제의 국학특강을 들었다.

역사는 우리의 얼입니다.

강의에서 한 처장은 "역사는 우리의 얼입니다. 얼이 찬다는 것은 과거라는 공간이 '점'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차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는 사실이라는 '점'이 아니라, '상상력'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돼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 때를 상상해내고, 상상된 것을 바탕으로 미래에 투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의 꿈을 그릴 수 있습니다. 미래의 꿈은 과거의 역사라는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 높은 집중도를 보였으며 보은고등학교 양영식 교장은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꼭 주고 싶다면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전국 국학원 단신

▲ **서울국학원** ▷7월 16일 오봉초 학생 50명 대상 '찬란한 문화이야기' 강의 실시 ▷7월 16일 구현초 학생 100명 대상 '국경일 이야기' 강의 실시 ▷7월 16일 선곡초 학생 100명 대상 '국경일 이야기' 강의 실시 ▷7월 16일 구남초 학부모 50명 대상 '힐링으로 소통하기' 교육 실시 ▷7월 17일 연천초 학생 50명 대상 '역사이야기' 강의 실시 ▷ 7월 17일 신정여중 학생 100명 대상 '국경일 이야기' 강의 실시 ▷7월 17일 서울시 민방위 강사 선도문화체험 힐링캠프 15명 ▷7월 20일 은혜유치원 가족캠프 실시 ▷7월 22일 상정중 '동기부여' 교육 실시 ▷ 7월 22일 선고초 '아버지 힐링교실' 교육 실시 ▷ 7월 17일 대성중 학생 50명 대상 '힐링캠프' 실시 ▷7월 24일 강남구 사랑봉사단 어르신 '힐링교실 ' 실시 ▷7월 24일 국학원 강사 환단고기 스터디 ▷7월 25일 상경중 동기부여 강의 대상 20명 ▷7월 25일 은평구 사랑봉사단 어르신 힐링교실 20명 ▷7월 27일 서울국학원 명상, 힐링센터 개원천제 실시, 노원국학원 사무실 개원식 행사 ▷7월 30일 은평구 연신내 역사 내 우리얼찾기범국민 서명운동 실시 ▷7월 30일 중구 단군나라 어르신 힐링무료급식 실시

▲ **강원국학원** ▷7월 16일 석사동 자치센터 자기명상수련 ▷7월 20일 강사교육실시 ▷7월 20, 24일 이엠흙공던지기 및 만들기 ▷7월 24일 이엠비누만들기(춘천)

▲ **경기국학원** ▷7월 16일 성남구미초 5학년 학생 172명 대상 국경일이야기 강의 실시 ▷7월 16일 파주새금초 학생 58명 대상 국경일이야기 강의 실시 ▷7월 16일 고양시 한뫼초 학생 196명 대상 국경일이야기 강의 실시 ▷7월 17일 수원매탄초등학교 국학동아리 '나만의 무궁화 그리고 이름 짓기' ▷7월 17일 국학교육 3기 3마당 영광사 교육 실시▷7월 17일 망포현대아파트 어르신 기체조 실시 ▷7월 17일 파주 갈현초 재미있는 국경일 이야기 강의 실시 ▷7월 17일 경기북부 '고양시 600년 기념 얼찾기 찾아가는 국경일 이야기 ' 사업으로 한뫼초 학생 210명, 강선초 학생 210명 대상 강의 실시 ▷7월 18일 고양시 한뫼초 학생 210명 대상 국경일이야기 실시 ▷7월 18일 수원고현초등학교 학생 69명 대상 국경일이야기 강의 실시 ▷7월 18일 용인서종중학교 학생 150명 대상 국경일 이야기 강의 실시 ▷7월 18일 시흥금모래초등학교 학생 125명 대상 국경일 이야기 강의 실시 ▷7월 18일 시흥금모래초등학교 학생 140명 대상 찬란한 역사문화강의 실시 ▷7월 20일 지역1일 민족혼 실시 ▷7월 20일 화성봉담문화의집 국경일이야기 강의 실시▷7월 20일 수원지혜샘도서관 인문학강좌 35명 대상 국학편 강의 실시 ▷7월 22일 용인 마북초 5학년 학생 5개반 150명 대상 국경일 이야기 강의 실시 ▷7월 22일 안산 선부초 6학년 학생 8개반 240명 대상 국경일이야기 강의 실시 ▷7월 24일 수원 매탄초 국학동아리 풍선제기차기, 목표게임 ▷7월 24일 국학교육 10마당 - 제4마당 왜곡사 ▷7월 24일 수원망포현대경로당 기체조 실시 ▷7월 25일 수원태안지역 아동센터 성장기 어린이 대상 몸짱,기짱 교육 실시 ▷7월 25일 수원광교지원아동센터 행공나눔교실 운영 ▷7 월 29일 수원태안지역아동센타 성장기 어린이 대상 몸짱, 기짱 교육 실시 ▷7월 29일 수원광교지원아동센타 헹공나눔교실 운영 ▷7월 30일 화성노인대학 중풍예방교실 실시

▲ **인천국학원** 인천경찰서 대상 힐링명상 특강 실시

▲ **대전국학원** ▷7월 18일 활동강사 22명 모임 실시 ▷7월 18일 조달청 강의 "바디&브레인 "실시 ▷7월 18일 바우처 아동건강 신규팀 수업 ▷7월 18일 용산초 아침체조 교실 운영 ▷7월 20일 비전형성서비스 토요반 운영 ▷7월 20일 어은중 부적응학생 웃음교류 강의 ▷7월 22일 중앙국학원장 초청 강의 ▷7월 25일 농업기술센터 130명 농업인 리더교육 실시

▲ **충북국학원** ▷7월 18일 청주동중학교 환경힐링캠프 진행 ▷7월 19일 제천중학교 교직원 55명 전통종목강습회 실시 ▷7월 22일 청주동중교사 30명 대상 EM발효액 만들기 실시

▲ **충남국학원** ▷7월 17일 충남서산시 서동초 해피스쿨 협 약 ▷7월 17일 천안시청 러브핸즈 실시

▲ **광주국학원** ▷7월 19일 약손봉사 경로당 15명 실시 ▷7 월 19일 풍영초등학교 학생 156명 대상 강의 실시 ▷7월 20일 숲명상 30명 대상 실시

▲ **전북국학원** ▷7월 22일 국학강사교육 실시 19명 ▷7월 22일 기획전략팀 모임 실시 ▷7월 22일 우리얼사랑 특별회원 모임 실시 ▷7월 20일 서전주중 힐링패밀리 23명 소통캠프 실시 ▷7월 22일 전주노인지회 어르신기체조교실 2곳 7회차 50명 진행 완료 ▷7월 24일 전주시 경로당순회사업 신일아파트 14명, E편한세상아파트 20명 ▷7월 23일 청소년 행복나눔 전주드림스타트 교육 실시 ▷7월 23일 신일경로당 어르신체조 교실 운영

▲ **전남국학원** ▷7월 16일 찬란한 한민족의 역사문화 이야기 강의 서해초 학생 146명 대상 강의 실시 , 청호중 학생 37명 대상 강의 실시 ▷ 7월 1 6일 연동경로당, 우미파크빌 경로당 방문 ▷7월 16일 전남국학원 강사모임 실시 ▷7월 18일 유달초 학생 87명 대상 찬란한 역사문화 이야기 강의 실시

전국 국학원 단신

▷7월 18일 국학강사 레벨업교육 실시 ▷7월 18일 진도보건소 힐링명상지도사교육 실시 ▷7월 18일 라이프1차 경로당, 우미오션빌 경로당 건강지도 실시 ▷7월 18일 목포이로초 132명 대상 찬란한 역사문화강의 실시 ▷77월 20일 광양 서초등학교 77명 대상 찬란한 한민족의 역사문화강의 실시 ▷7월 20일 목포영산초등학교 292명 대상 찬란한 한민족의 역사문화강의 실시 ▷7월 20일 진도보건소 '힐링명사지도과정' 교육 실시 ▷7월 20일 경애원 국학기공교실 운영 ▷7월 26일 광양 서초등학교 45명 대상 국경일 이야기 강의 실시 ▷7월 26일 순천 대석초등학교 학생 175명 대상 국경일 이야기 강의 실시 ▷7월 26일 목포 한빛 초등학교 학생 114명 대상 국경일 이야기 강의실시 ▷7월 26일 여수 남초등학교 학생 대상 국경일 이야기 강의 실시 ▷7월 26일 국학강사모임 금빛 봉사단 ▷77월 26일 진도보건소 강사교육 실시 ▷7월 26일 건강수련지도 7곳 103명 대상 실시

▲ **대구국학원** ▷7월 15일 본리초 해피스쿨 협약식 체결 ▷7월 15일 노변중 학생 125명 대상 자기명상강의 실시 ▷7월 17일 밑반찬배달 18가정 실시 ▷7월 18일 상인중 해피스쿨 체결 ▷7월 18일 노변초등 재능기부 실시 ▷7월 18일 중앙초 학생 250명 대상 재능기부 실시 ▷7월 18일 대구흥사단 30명 부모됨의 철학 강의 실시 ▷7월 21일 힐링명상지도사 과정 27명 개설 실시 ▷7월 19일~20일 봉사단 참석 ▷7월 20일 성지초 가족 숲명상 6가족 실시 ▷7월 21일 힐링명상지도사교육 27명 이수 ▷7월 21일 중앙초 3회차 재능기부 실시 ▷7월 21일 노변초등 6학년 5개반 재능기부 실시 ▷7월 23일 대구청소년 수련원에서 렛스쿨 야간명상지도 40명 실시 ▷7월 27일 글로벌리더청소년봉사단 교육 실시

▲ **경북국학원** ▷7월 16일 신라고등학교 학생 60명 대상 인성진행 60명 ▷7월 17일 경북도청보조금 사업 - 김천중앙중 학생 130명 대상 , 안동복주중 학생 99명 대상 경북혼을 일깨우는 역사교실 강의 실시 ▷7월 17일 선산보건소 70명 대상 건강강의 실시 ▷7월 17일 사회복지과 청소년뇌교육 강의 실시 ▷7월 18일 안동복주중 학생 140명 대상 역사교실국학특강 (도청사회단체보조금사업) ▷7월 18일 농협수련지도 ▷7월 18일 영천포은초등학교 해피스쿨 협약식 ▷7월 20일 행복나눔 국학기공교실 30명 수료식 ▷7월 20일 국학기공 전통종목강습회 경주센터에서 진행 50명 ▷7월 24일 경북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국학강의 ▷7/27~28일 힐링패밀리모임

▲ **경남국학원** ▷강사보수교육 실시 ▷7월 27일 힐링패밀리 레프팅 캠프 실시 ▷7월 30일 도통군자 워크샵 실시

▲ **부산국학원** ▷7월 16일 동주여고 학생 700명 대상 국경일이야기 강의 ▷7월 16일 전주여고 국경일이야기 강의 ▷7월 17일 신규강사 교육 진행 ▷7월 19일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역사강의 6회차 실시 ▷7월 20일 국학신규강사교육 ▷7월 22일 강사대안교육센터 인성강의 실시 ▷7월 24일 부산 전지역 러브핸즈 행사 실시

▲ **울산국학원** ▷7월 16일 성안중학교 학생 150명 뇌체조명상수업 실시 ▷7월 16일 옥현중학교 학생 20명 대상 뇌교육수업 ▷7월 18일 중부도서관 어머니회 EM강의 실시 ▷7월 18일 울산시민강좌 실시▷7월 19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와 울산국학원 업무협약(MOU)체결 ▷7월 19일 옥현중학교 학생 20명 뇌교육수업 ▷7월 16,19일 웅촌유치원 뇌교육수업 ▷7월 17, 22일 금연교실수업 무거중 2학년 15명▷7월 20일 남부경찰서 선도교실 운영▷7월 22일 강남중 학생 50명 대상 BOS강의 ▷7월 22일 삼평유치원. 서생유치원 40명 대상 뇌교육수업 ▷7월 23일 중학생 대상 뇌교육 캠프 ▷7월 25일 신규강사교육 ▷7월 26일 울산강남중학교 학생 30명 대상 또래상담사 교육 실시▷7월 26일 남구 공부방 EM강의 실시 ▷7월 26일 동구 노인대학 EM강의 실시 ▷7월 27일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선도관련 교육 실시

▲ **제주국학원** ▷7월 16일 한길정보통신학교 행복한 자기명상 실시 ▷7월 16일 비전형성수업 2시간 실시 ▷7월 16일 하귀2리 20명, 외도부영2차 20명 어르신건강관리 실시 ▷7월 16일 대안교실위탁교육 6교시 실시 ▷7월 16일 삼양초 학생 100명 대상 '신나는 뇌교육' 실시 ▷7월 16일 삼양초 학생 129명 브레인명상 실시 ▷7월 16일 한길정보통신학교 한민족의 수난사 강의 실시 ▷7월 16일 하귀1리 어르신 건강수련 지도 ▷7월 16일 하귀2리 자기명상건강관리 ▷7월 18일 외도부영1,2차, 도남동 자기명상 건강관리 강의 ▷7월 18일 도평초등학교 학생 75명 대상 행복하고 신나는 국학 강의 ▷7월 18일 도평초 학생 64명 대상 힐링자기명상 실시 ▷7월 18일 구엄초 학생 102명 대상 뇌교육인성 22차 실시 ▷7월 22일 납읍리 자기명상 건강관리 1시간 30명 ▷7월 18일, 22일 대안교실위탁교육 6시간 수업 및 학부모 상담 ▷7월 23일 비전형성 브레인명상 수업 ▷7월 23일 외도부영1,2차, 하귀2리자기명상 건강관리 강의 ▷7월 23일 한길정보통신학교 충무공리더십 강의 ▷7월 23일 한길정보통신학교 뇌교육인성 특강 ▷7월 24일 농업경영인대회 멘탈헬스와 명상법 1시간 40명 실시 ▷7월 16일, 24일 한길정보통신학교 분노조절 강의 ▷7월 24일 하귀2리 30명 대상 멘탈헬스를 위한 지감명상 실시 ▷7월 24-25일 외도부영1,2차 어르신 건강을 위한 자기명상 실시 ▷ 7월 16일, 24-25일 대안교실위탁교육 ▷ 7월 24일 6시간 수업 및 아버지 상담 ▷ 7월 26일 서귀포시 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청소년캠프 웃음강의 30명 실시 ▷7월 26일 수산리 어르신 자기명상 건강관리 35명 실시 ▷7월 26일 아동비전형성 일지포지션 수업 ▷7월 26일 대안교실위탁교육 수업 실시 ▷제주중학교와 해피스쿨 협약 ▷소방대원 대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 을 위한 힐링캠프 진행

힐링패밀리를 위한 국학시민대학

사단법인 국학원에서 주최하는 국학시민대학은 국학을 통해 우리의 역사, 문화, 철학을 이해함으로써 한민족의 얼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국학을 통해 잃어버린 한민족의 정신을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가져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앎을 통해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한 삶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본과정입니다. 원리와 체험을 동시에 만족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국학시민대학 초급반 12주 차수별 주제

차수	주 제
1강	입학식/국학과 한국학
2강	나를 찾아가는 국학
3강	선도수행과 힐링명상법1
4강	선도수행과 힐링명상법2
5강	선도수행과 힐링명상법3
6강	우리말 속에 감춰진 비밀
7강	국학과 힐링패밀리 운동
8강	한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찾아서
9강	선도문화와 양자역학
10강	힐링소사이어티를 위한 통찰
11강	지구시민으로 살아가기
12강	일지학/ 수료식

과정: 3개월/ 주당 3시간

개강: 2013(4346)년 8월 17일(토) 13:30

문의: 중앙국학원 및 지역국학원

www.kookhakwon.org
대표전화: 041-620-6700(6830)

국학원 후원안내

국학원 후원방법 (법인,개인)	
CMS	월 5천원, 1, 3, 10만원, 기타( )원 ▶이체일 5,10,25,30일
후원 계좌	우리은행 554-04-109521 농협 018-01-219288 우체국 012765-01-007837 ▶ 예금주:(사)국학원
기타	일시불 후원(개인,법인)은 우리은행 계좌 이용

홈페이지 www.kookhakwon.org
문의 : (사)국학원 041-620-6700